

2018년 12월 2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워싱턴 리스크' 부각되며 급락 므누신 재무장관, "미 주요 6대 은행 CEO와 유동성 점검"

미 증시 하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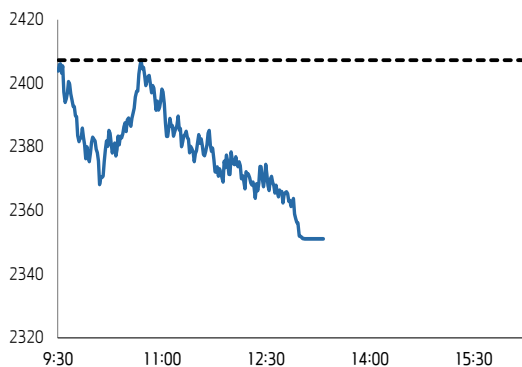
지난 24 일(화) 미 증시는 정부 섰다운 장기화 우려 및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연준의장 해임 논의, 특히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6 대 은행 CEO와의 회동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 더불어 국제유가가 6% 넘게 급락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점도 부담(다우 -2.91%, 나스닥 -2.21%, S&P500 -2.71%, 러셀 2000 -1.95%)

미 증시는 ①섰다운 장기화 우려 ②파월 연준의장 해임 논의 ③므누신 장관의 은행 CEO와의 회동 여파로 급락. 섰다운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관련 예산을 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논란을 보이고 있어 장기화될 여지가 높다는 점이 부담. 특히 2019년 1월 3일 이후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면 하원이 민주당 과반으로 돌아 선다는 점에서 마찰이 지속될 수 있어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이 투자심리 위축

이와 함께 파월 연준의장 해임 논란도 부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인상에 반발해 보좌관들과 해임 논의를 했다는 소식에 기인.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이 적법하고 구체적인 이유로 연준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 해임 논의를 진행한다면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논란을 불러 올 수 있어 불확실성을 야기.

특히 장중 하락폭을 확대한 요인은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주요 6개 은행 CEO와 통화를 통해 유동성을 점검 했다는 소식. 므누신 장관은 "금융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문제가 없다" 라고 발표 했으나, 시장은 이러한 회담이 오히려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행보와 같으며 매물을 내놓음. 특히 연준과 증권거래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금융시장 워킹 그룹과 금융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 했다는 소식도 부담. 결국 미 증시는 트럼프와 므누신의 행보가 불안 심리를 자극해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위축시킴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55.01	-0.31	홍콩항셱	25,651.38	-0.40
KOSDAQ	669.79	-0.57	영국	6,685.99	-0.52
DOW	21,792.20	-2.91	독일	10,633.82	+0.21
NASDAQ	6,192.92	-2.21	프랑스	4,626.39	-1.45
S&P 500	2,351.10	-2.71	스페인	8,480.60	-0.89
상하이종합	2,504.82	-0.88	그리스	608.58	-0.80
일본	19,155.74	-5.01	이탈리아	18,397.19	-0.9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일본, 중국은 25일 독일,이탈리아는 21일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주 급락

JP모건(-2.16%), BOA(-2.74%), 웰스파고(-3.37%) 등 금융주는 므누신 재무장관이 은행 유동성 점검을 했다는 소식과 트럼프의 파월 연준의장 해임 논의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엑손모빌(-3.83%), 코노코필립스(-4.67%), EOG리소스(-5.04%) 등 에너지주는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 했다. 마이크론(-4.29%) CEO는 2019년에는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언급하는 등 장기 추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했으나 경기 둔화 되면 수요 환경이 위축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 했다.

한편, 알파벳(-0.66%), 페이스북(-0.82%) 등 일부 대형 기술주는 최근 하락이 이어져 왔던 점을 감안 낙폭이 제한 되었다. 반면, 카맥스(+0.15%)는 투자외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뉴몬트마이닝(+3.13%)는 금 가격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4.85%	대형 가치주 ETF	-2.62%
에너지섹터 ETF	2.42%	중형 가치주 ETF	-3.01%
소매업체 ETF	-0.39%	소형 가치주 ETF	-2.31%
금융섹터 ETF	-2.11%	배당주 ETF	-3.34%
기술섹터 ETF	-2.67%	변동성 ETF	+4.64%
소셜 미디어업체 ETF	-0.52%	대형 성장주 ETF	-2.51%
인터넷업체 ETF	-1.80%	중형 성장주 ETF	-1.98%
리츠업체 ETF	-3.68%	소형 성장주 ETF	-1.51%
주택건설업체 ETF	-2.23%	신흥국 고배당 ETF	-0.61%
바이오섹터 ETF	-1.38%	신흥국 저변동성 ETF	-0.33%
헬스케어 ETF	-2.39%	하이일드 ETF	-0.75%
곡물 ETF	-0.29%	물가연동채 ETF	+0.15%
반도체 ETF	-2.65%	Long/short ETF	-0.1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98.39	-4.02%	-10.97%	-15.23%
소재	296.58	-2.66%	-5.51%	-10.97%
산업재	507.50	-3.14%	-7.97%	-13.14%
경기소비재	723.47	-2.02%	-7.83%	-9.80%
필수소비재	500.59	-2.98%	-7.79%	-10.68%
헬스케어	934.18	-2.49%	-7.05%	-9.81%
금융	370.49	-2.35%	-6.63%	-13.94%
IT	1,011.31	-2.73%	-8.42%	-9.80%
커뮤니케이션	130.86	-2.04%	-7.64%	-7.86%
유틸리티	261.70	-4.27%	-5.50%	-4.26%
부동산	185.39	-3.72%	-6.37%	-8.8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

MSCI 한국지수는 0.78% MSCI 신흥지수도 0.93%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2,567 계약) 여파로 3.05pt 하락한 258.5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4.7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증시는 극도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미국의 S&P5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9%(9 월말 yoy +10.4%) 증가에 그치는 등 지속적인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기된 정치 불확실성은 투자심리 위축을 더욱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변화요인은 한국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일 일본 증시가 엔화 강세 여파로 5% 넘게 급락 했으나, 중국 증시가 하락폭을 축소한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의 무역균형,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 라고 발표하고, 내년부터 700 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고 발표 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다.

한국 증시는 이러한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한 경기 부양정책 발표 등 긍정적인 요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낙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국가활동지수 개선

11 월 시카고 국가활동지수는 0.22 로 예상치(0.19)를 상회해 여전히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이어지고 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매물이 매물을 불러온 하루

국제유가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이어지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매물이 출회되었다. 더불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매물이 매물을 불러오는 쇼크를 불러온 점도 국제유가 급락을 불러왔다. 한편, UAE 에너지 장관은 “시장 안정을 불러오지 않으면, 추가 감사도 가능하다” 라고 언급 했으나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달러화는 미국 정치권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특히 파월 연준의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 했다는 점, 미국 주요 은행들의 유동성을 점검했다는 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달러 약세를 더욱 부추겼다. 한편, 중국 역외 위안화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25 일에는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하는 등 되돌림 현상이 이어졌다.

국채금리는 주식시장 급락 여파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했다. 특히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6 대 주요 은행 CEO 와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이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자극한 여파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이 부담을 줬다. 한편, 2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76 배) 보다 낮은 2.31 배를 기록했으나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았다.

금은 달러 약세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415 상승 했으나, 철근은 0.03%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2.53	-6.71	-15.28	Dollar Index	96.715	+0.17	-0.40
브렌트유	50.47	-6.22	-15.33	EUR/USD	1.1393	-0.11	+0.28
금	1,271.80	+1.09	+1.60	USD/JPY	110.21	-0.22	-2.05
은	14.820	+0.80	+0.41	GBP/USD	1.2675	-0.24	+0.28
알루미늄	1,893.00	-0.84	-2.52	USD/CHF	0.9867	+0.04	-0.56
전기동	5,955.50	-0.59	-2.74	AUD/USD	0.704	-0.13	-1.96
아연	2,474.00	-1.12	-2.56	USD/CAD	1.3602	+0.04	+1.01
옥수수	377.75	-0.20	-1.63	USD/BRL	3.9046	+0.15	+0.06
밀	516.50	+0.49	-3.50	USD/CNH	6.8938	-0.13	+0.01
대두	897.00	-0.08	-2.29	USD/KRW	1125.20	+0.25	-0.54
커피	102.20	+2.51	+2.10	USD/KRW NDF1M	1124.72	-0.04	-0.0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738	-5.19	-11.87	스페인	1.397	0.00	0.00
한국	1.990	+1.50	-1.20	포르투갈	1.677	0.00	+3.20
일본	0.019	-2.80	-0.70	그리스	4.330	-0.20	+0.60
독일	0.250	0.00	-0.60	이탈리아	2.827	0.00	-13.00